

간호원의 순으로 활동시간을 많이 소모하여 사업분야별 간호기술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부 도시·농촌의 보건소 이용 실태와 건강진단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제40권 제3호, pp. 205~217, 1981.

윤석옥 · 이지현

부산·경남의 일부 보건소의 이용실태와 건강진단 업무 및 간호인력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1980년 7월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30일간 응답형식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면접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건소 이용실태에 관하여

1. 전체 대상자 2,850명중 여자가 58.8%, 남자가 40.9%로 도시·농촌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이용했다.

2. 연령분포에선 도시의 경우 20대가 0.98%, 30대가 1.0%, 농촌의 경우 40대가 1.81%, 50대가 1.66%의 높은 이용율을 보였는데, 이는 도시로 농촌의 노동인구가 진출됨으로 보이며, 대체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용율이 증가하였다.

3. 국민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도시지역 44.2%, 농촌지역 73.4%로 낮은 학력을 보이고 월수입 전무도 12.7%로 낮은 경제력을 보였는데, 이는 대상지역이 영세지역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지역별 분포에선 도시의 경우 서비스업이 40%, 상업 10%, 농촌의 경우 농업이 32.7%, 서비스업 8.0%, 상업이 7.5%로 나타나 보건소의 보건봉사가 주로 국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행해짐을 보였다.

5. 방문목적별로는 도시의 경우 보건증이 25.0%, 예방접종이 14.4%, 결핵이 12.5%이고, 농촌의 경우 결핵이 24.2%로 아직도 수위이고 예방접종이 17.9% 일반치료가 16.1%로 도시의 경우는 보건증발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 건강진단 업무에 관하여

1. 대상인구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실적은 전체 대상인구 540,596명에 대한 검진실적은 45.5% 이하이고 이에 따른 검진요원수는 대상검진자수의 고려없이 직종별로 각 1명씩이었다.

2. 환자별발견에 있어 검진인원 1,000명에 대하여 결핵이 5.9명, 성병이 6.3명으로

나타났다.

3. 스스로 소견이 있어서 검진에 응한 일반 내소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X-ray 검진에서의 환자발견은 18.9%로 나타났다.

4. 각 보건소의 일평균 검진건수는 도시 148건, 농촌 86건이었고 재검진율은 총검진건수 65,754명 중 재검진이 7,303명으로 11.1%였다.

5. 건강진단 업무에 따른 문제점은 시설의 미비가 32.5%로 가장 크고 둘째 요원이 부족이 26.8%로 나타났다.

3) 보건소 근무 간호인력에 대하여

1. 평균연령은 35.16세로 매우 높으며 이는 고령 간호원의 취업 즉, 타병원 근무중 결혼등으로 퇴직한 후 다시 취업을 희망하여 보건소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2. 기혼자 78.6% 미혼자 13.4%로 전체 평균 연령이 높고 이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3. 1년 이하의 근속자의 31.3%이고 1~4년 근속자가 53.0%, 4년이상 장기근속자는 13.7%에 불과하였고 평균 근무기간은 23.25개월이다.

4. 근무희망 기간 5년이하가 27.5%, 5~10년이 8.7%이고 평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보건행정과 보건소 간호원의 인력관리에 몇가지 제의하고자 한다.

제의 1) 우리나라의 보건소 행정은 허가와 감독업무에 치중되어 국민들의 보건향상이나 질병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국가보건시책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가용자원의 한계를 인정하여 우선 순위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제의 2) 일반적인 보건의료사업이 그 효과에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위해서 보건교육, 사회사업, 치료 및 예방법 사업까지 포함시킨다면 도시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틀림없을 것이다.

비싼 인력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요즈음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차진료'에 만족할 만한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이외에 훈련된 간호원의 활용이 요구된다.

제의 3) 1962년이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실행하여 적은 수의 자녀수를 갖는 등의 성대한 성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가족계획 중단율과 실패율이 높아 인공유산율이 높아져 감을 감안하여 보고,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대부분 도시로 유출되는 관계로 현재 농촌을 주 노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녀자들과 앞으로 2세 출생의 건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할때 양보다 효과적인 가족계획사업 제공과 안전분만 제공등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의 4) 보건소 근무 간호원의 재직동향이 보수의 개선, 정원증가, 직제의 일원화

등의 복지조건의 향상으로 인해 낮아지고 있는 이직추세와 함께 결혼이후에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훈련하여 활동영역을 넓혀 줌이 바람직하겠다.

전북지역 일부 주민들의 자녀가치관에 대한 태도 조사

전북대학교 간호전문대 논문집, pp. 43~57, 1981.

이 속 회

본 연구는 임의로 선정한 전북지역주민 1,394명을 대상으로 1982년 6월10일부터 동년 7월10일사이에 표준화된 질문지에 의해 수집된 자녀가치관에 대한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인 특성

- 1)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6.8세이었다.
- 2) 성별은 남자 48.92%, 여자 51.08% 였다.
- 3)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과반수이상(55.88%)이 대학 및 그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 4) 평균 현존자녀수는 3.9명이었다.

2.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

- 1) 도구적 가치로서의 자녀관에 있어서는 가문계승(평점 5.52)이 가장 높은 긍정반응을 나타내었으며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긍정반응을 보였다.
- 2) 정서적 가치로서의 자녀관은 사랑의 대상(평점6.17)이 가장 높은 긍정반응을 보였으며 도시지역이 더 긍정반응이었고 도구적, 부정적 가치로서 보다 높은 평점을 나타내었다.
- 3) 부정적 가치관을 보면 경제적 부담(평점5.12)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을 보였으나 자녀양육활동(평점3.15)에 대해서는 부정반응을 나타내었으며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높은 평점을 보였다.

3. 가계존속으로서의 남아욕구에 대한 태도

가계존속을 위한 남아욕구에 대해서는 아들이 필요하지만 없을 경우엔 포기하겠다는 반응이(53.80%) 가장 많았는데 농촌지역에서($p < 0.05$), 학력이 낮을수록($p < 0.01$), 남성($p < 0.01$)이, 아들에 대한 욕구가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